

가계부채 1450조원 돌파... 美 금리인상에 국내도 인상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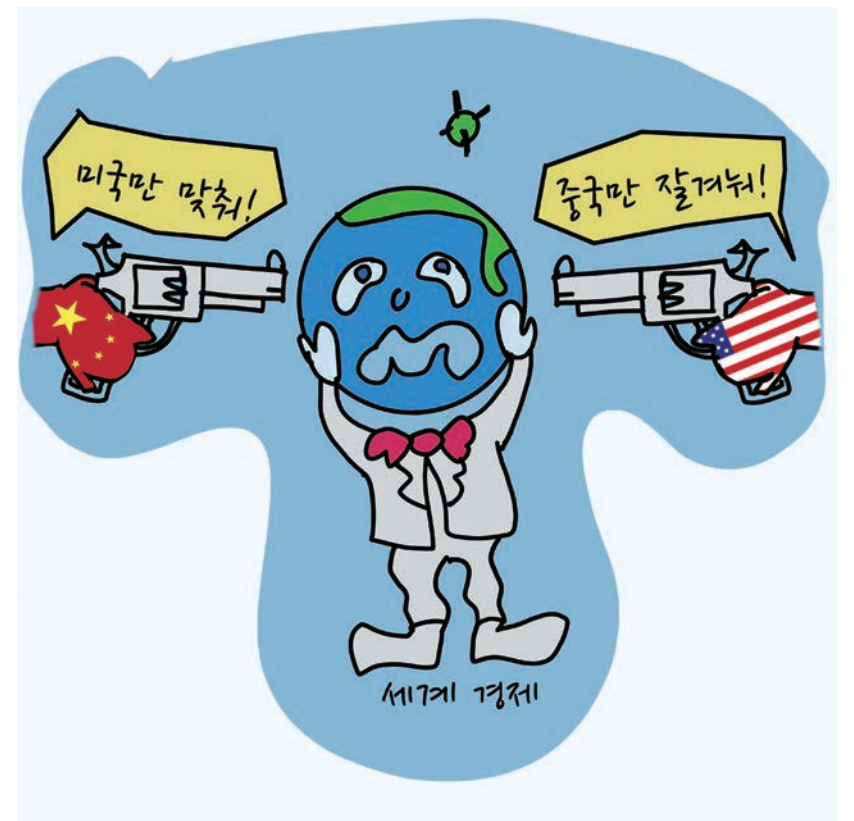


전 세계 모터바이크의 전설적 브랜드인 할리데이비슨이 악몽 같은 3일을 지내고 있다. 트럼프의 유럽연합(EU)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으로 EU가 미국산 모터바이크에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이후 할리데이비슨 주가는 약 9% 하락했다. 할리데이비슨은 유럽 보복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장을 제3국으로 이전하겠다고 트럼프 행정부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그 이후 이 회사 주가는 안정세를 찾고 있다.

과거 트럼프가 비난한 기업들의 2017년 이후 주가를 살펴보면 오히려 좋은 성과를 보여 대통령의 권위가 서지 않는 모습으로 주목을 끈다. 보잉은 대통령 전용기 가격이 비싸다며 비난을 받았으나 주가가 112% 상승했고, 멕시코의 생산 공장지로 비판받은 GM은 주가가 40% 올랐다.

경제가 뒤숭숭할 때면 어김없이 위기설이 등장한다. 지난 6월 미국 금리 인상과 더불어 외환보유액이 취약한 이머징마켓에는 긴축 발작에 가까운 자금 이탈과 경제 동요가 있었다.

한국경제도 주식시장 하락, 청년실업 등 부정적인 신호가 나오는 가운데 6월 초부터 시장 폭락, 대규모 자금 이탈,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 기반 붕괴 등 경제 위기설이 만연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설의 배경에 있는 각종 이해관계를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일어나는 경제 현상이 아니라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지는 경제 현상도 있기 때문이다. 나타났다 사라지는 수많은 경제위기설이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지난 6월 27일 세계시장은 무역분쟁 소란 후 신속한 회복력(resilience)이 돋보였다. 전일 미국 재무부가 안보상 중요한 기술을 가진 미국기업의 지분을 25% 이상 중국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제한을 다른 국가에도 적용한다고 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제한 조치를 중국에 한정할 것이라고 정정했다. 투자자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을 강성 일변도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키우면서 시장은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 치킨게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이 회복력의 배후에는 강한 미국 경제가 있다. 미국 경제는 역사상 두 번째로 긴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시장은 경기후퇴론이 무성했다. 그러나 전문가의 기대와 달리 경제 성장세는 견고했다. 2017년까지 실업률은 목표 수준까지 내렸으나 물가가 오르지 않아 (필립스 곡선의 수수께끼) 연방준비위원회는 금리인상을 신중히 했다. 그러나 6월 연준은 물가가 회복되자 경제성장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가계부채가 1450조원을 넘었다. 한국 명목 GDP가 1700조원 수준이니 그 심각성을 짐작할 만하다.

주택담보대출이 50% 이상이고 개인사업자대출과 신용대출이 30% 이상이다. 정부는 주택담보 중심의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부채 총량과 소득 수준을 반영하여 신DTI, DSR을 시행했다. 미국 금리가 계속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금리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급격히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디레버리지)이 전개되면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소비 수요 축소 등 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므로 사전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무차별한 대출 축소 과정이 시작되면 취약 계층은 무방비라는 점이다. 2주택 이상 투자하는 계층은 대출을 축소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장기간 소득이 무너진 중산층 이하 소득계층은 주택 또는 전세를 담보로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다. 실업률이 최고 수준이므로 많은 사람에게 대출 기준 강화는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
'해양환경공단'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바다는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를
해양환경공단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KOE 海洋環境공단